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4 | 역마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지문인 시나리오 「역마」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역마살’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그에 순응하는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와, 시나리오 특유의 기법(E, 회상 등)이 극적 효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특히 <보기>의 상황을 주고 인물의 선택이 갖는 운명론적 의미를 고르거나, 배경 묘사(눈, 강물 등)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소설 원작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성기와 계연이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데, 왜 꼭 헤어져야만 하나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천륜(혈연관계)’의 벽 때문이라. 성기의 어머니 옥화는 체 장수 영감(동운)이 자신의 친아버지이고, 계연이가 자신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즉, 성기에게 계연이는 이모가 되는 셈이지.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가혹한 운명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헉,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그런데 성기가 병에서 회복된 뒤에 왜 하필 ‘옛판’을 맞춰달라고 하는 건가요? 달달한 호박엿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옛판’은 장터를 떠돌며 장사를 하는 이들의 도구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기의 ‘역마살’ 운명을 상징하는 핵심 소재야. 성기가 옛판을 메기로 결심한 것은 어머니가 바랐던 정착이나 아버지를 찾는 강원도행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떠돌이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운명에 대한 순응을 의미한다.





지문 중간에 나오는 S#148 ~ S#150 강변 장면에서 현실과 회상이 교차하는 부분은 어떤 효과를 주나요? 다 강변이라서 조금 헷갈려요.

현재의 얼어붙은 강물과 평평 쏟아지는 눈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성기의 고독하고 쓸쓸한 심리를 형상화해. 반면 회상 장면(S#149)에서 강물이 서서히 풀리는 묘사는 두 사람의 행복했던 과거를 제시하지. 이러한 대비를 통해 성기가 이별의 슬픔을 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과정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거야.



마지막 장면에서 성기가 세 갈래 길 중 '하동 길'을 선택해서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뭔가 엄청 중요해 보여요.

세 갈래 길은 인물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운명적 기로를 상징해. 성기가 계연이가 떠난 '구례 길'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하동 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절대적 운명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기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걸어가듯 가볍게' 묘사된 것은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얻은 정신적 해방감을 표현한 것이지.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4 | 역마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S#142. **옥화**(성기의 어머니)네 집

짐을 지고 일어서며

동운(계연의 아버지이자 옥화의 아버지. 과거에 남사당패로 옥화의 어머니와 하룻밤 인연을 맺음.): **그럼 아점씨. / 옥화:** 예……. 혹시 지나는 길이 있거든 꼭 들리시소예—.

오동운 끄덕인다. / 그때 뛰어 들어오는 성기. / **계연이**(계연과 성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는 **성기를 보자 갑자기 생기를 띠며 발짝 일어난다.**(성기에 대한 반가움과 성기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드러남.)

계연: 아—, 오빠. / 옥화: **성기야, 계연이가 시방 떠난단다.**(계연은 아버지를 따라 여수로 떠날 예정임.)

성기, 그 자리에서 선 채 표정이 굳어진다.

동운: 아들이 참 잘생겼소. / 성기: …….

옥화: 계연이 아버지시다. 어젯밤에 오셔서 그 길루 떠나려고 하시는 걸 내가 하루 더 쉬어 가라고 만류했었다.

쇠뿔치로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는 성기.(‘계연이 떠난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된 성기의 충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옥화: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을 만났다는구나, 여수에서 큰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영감님을 보구서는 굳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권하더란다. 그래서 **고향 생각도 나구**(동운의 고향은 여수임.) 또 그 사람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될 것같이도 생각되어 여수로 가시는 길 이시다.]([]: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동운은 여수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의 권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계연이만 쳐다본다.

계연이도 애걸하듯 호소하듯 붉은 눈(성기와 헤어짐에 눈물을 참고 있음.)으로 성기만 바라다본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지만 헤어지는 상황. 침묵을 사용해 인물들의 애절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음. ‘계연과 성기와 헤어지는 순간에 계연의 슬픔이 인물의 표정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성기는 알아누운 채 굵어 죽을 결심을 한다.**(계연과 이별한 뒤 삶을 포기하려 함.) 옥화는 그런 성기에게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성기는 자신의 이모와 사랑에 빠진 것임.)이고 **계연을 잠시 남겨 둔 채 길을 떠났던 동운이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계연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털어놓는다.**(옥화는 죽을 지경에 처한 성기에게 계연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혈연관계’를 털어놓음.)

S#148. 강변

얼어붙은 은어잡이 배 위에 수북이 쌓인 흰 눈,(계절적 배경. 성기의 쓸쓸한 정서를 강조함. '눈'의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 '성기가 혼자 있는 장면에서 배경으로 등장하여 쓸쓸함을 더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성기가 나와서 물끄러미 얼어붙은 강을 들여다본다.

[거기서 **계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나던 일이 회상된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서서히 풀리면서**(얼어붙은 강이 서서히 풀리는 상황이 묘사됨.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의 전환을 나타냄.)

계연: (E)*오빠! 요즘은 어찌자고 만날 **절**(성기의 역마살을 풀기 위한 방법)에만 노 있는 것이여—.

성기: (E) 어무니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장면이 '강변'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당시 성기와 계연의 대화 내용이 (E)(이펙트 기법)로 제시됨.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의 전환과 과거 성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장치임.)

S#149. **강변(회상)**(앞 장면에서 화면이 바뀜. S#148과 S#150에 드러난 이별 후 슬픔에 빠져 있는 성기의 상황과 대비되는 기쁘고 설레는 성기의 상황이 나타남.)

계연: 그렇다구 안 오든 난 어찌라구. 보고 싶어 뚝 죽겠는디.

성기: 나두 기어이 절에서 배겨 내려구 했지만도 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계연: 저번 날은 지가 잘못했어라우. 공연히 오빠 부아만 돋우어 놓고.

성기: **나 니한테 장가들란다. 기획 봐서 어무니한테 말할 끼구마.**(성기는 과거에 계연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계연: 정말?

성기 끌어안으려다가 슬며시 손을 내린다.

계연: ? …… / 성기: 니 말이 맞다. 장가들기 전엔 손목두 안 만질란다.

미소 짓다가 눈을 감으며 뒷짐을 지고 입술을 내미는 계연.

지켜보다가 자기도 뒷짐을 지고 입을 맞추는 성기.

그 그림 위에 펄펄 눈이 내리며(‘눈’의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 ‘회상 장면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출 때 내려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S#150. **강변(현실)**(S#149에서 드러난 성기의 상황과 대비되어 정서를 더욱 강조함.)

회상에서 깨어나는 성기.

평평 쏟아지는 눈. / 끽끔 얼어붙은 강물.(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로운 마음을 형상화함. ‘눈이 내리는 장면을 현실과 회상의 연결 고리로 사용하여 분위기의 연속성을 부여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성기, **눈과 함께 흐르는 눈물을 쓱 문지르고 돌아선다.**(눈물을 닦은 후 S#150에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임.)

S#151. 옥화네 집 방안

옥화가 미음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기 앞에 놓는다. **말없이 그릇을 끌어당겨 미음을 먹는 성기—.**(살아갈 의지를 되찾음.)

옥화: (지켜보다가) **성기야—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성기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성기는 아버지를 찾아가고자 했음.) / 성기: …… (고개를 흔든다.) (강원도 쪽으로 갈 생각이 없음.)

옥화: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화개 장터에서 정착하는 삶) / 성기: …… (역시 고개를 흔든다.) (정착할 생각이 없음.)

옥화: 그럼 어쩔 거냐? **너 졸대로 해라.**(아들의 역마살을 극복하려는 미련을 버리고, 운명에 순응함. 옥화의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남.) / 성기: 봄이 오면…….

옥화: 봄이 오면? …… / 성기: **나 엇판 하나만 맞춰 주.**(자신에게 주어진 떠돌이 운명(역마살)에 순응함. ‘엇판’의 상

정체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정체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역마살의 운명'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옥화: …….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본다.(정착이 아닌 떠돌이 삶을 선택한 성기의 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음.)

슬픈 눈으로 마주 보다가 다시 미음을 떠먹는 성기.

옥화: (끄덕이고 한숨 섞어) 그래라……. 니 좋을 대루 해야제.

하며 일어난다.

S#152. 강(봄)

햇살을 받고 번득이는 강물. / 떠 있는 은어잡이 배들(‘생동감 넘치는 봄의 모습을 제시하여 봄이 오면 얼음이 녹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에 씻기는 버들가지. / 산에서 내려오는 빠꾸기 소리.(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며 인물의 선택이 자연의 섭리(운명)에 따르는 것임을 암시함.)

S#153. 삼거리(‘세 갈래 길은 성기에게 주어진 여러 갈래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적 기로를 상징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성기가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엿목판을 질빵 해서 느직하게 엉덩이쯤에다 걸치고는 걸어온다.(역마살을 없애기를 바라는 옥화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택한 떠돌이 옛장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함.) 그 뒤에 옥화가 시뻘게진 눈으로 따라 나온다.

성기: (옥화를 돌아보고) 어무니 어서 들어가시오.

옥화: 오냐— 내 걱정 말고 니나 몸 성히 다녀오그라. / 성기: 야—

이윽고 세 갈래 길 한복판에 올라서는 성기—(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 역마살의 운명을 타고난 성기의 정체 없는 삶을 암시함.)

잠시 계연이가 떠나간 구레 길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발길을 돌려(계연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음.) 하동 길(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길. 떠돌이의 길. ‘하동 길’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에서 ‘성기가 짙어진 ‘엿목판’이 적절한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역마살’이라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기가 결국 발길을 하동 길로 돌린 것은 운명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운명을 정면으로 수용함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로 들어선다.

저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옥화의 외로운 모습.

혜초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혜초: (E) 절에 말긴다고 역마살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혜초의 말을 통해 절에서 지내고도 역마살을 풀지 못한 성기가 자신의 운명을 좇아 길을 떠나게 되는 상황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음.) 가슴에 남달리 꿈이 많아서 그런 거니 지가 열심히 수도해서 그 꿈을 죽일 수밖에…….

소향: (E) 사내들 마음은 밖으로만 떠돌기 마련이구, 기집들은 그걸 붙들어 놓지 못해 안달이구……. 그러다 놓치면 눈물로 늪어 가구……. 사람이란 천생 그렇게 살기 마련인 갑다.

옥화: (E) 원래 여자들보다 사내들이 더 꿈이 많은가 봐요.]([]: 옥화가 성기를 배웅하는 장면 속에 포함된 (E)는 역마살을 가진 성기의 앞날에 대해 혜초, 소향과 대화하던 옥화의 회상 내용을 나타냄. 해당 장면의 (E)의 효과를 묻는 문제에서 ‘성기의 선택이 개인의 변덕이 아닌 운명의 수용임을 제시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옥화, 주르륵 눈물을 짓는다.(아들을 배웅하며 아쉬움과 슬픔이 드러남.)

저만치 성큼성큼 걸어가는 성기, 눈물에 흐려진다.

S#154. 길

강물에 비치는 성기의 그림자.

앞은 흰히 트인 하늘.(이제까지의 갈등(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순화되었음을 의미함. **흰히 트인 하늘의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세속적 번뇌를 벗어나 운명을 수용한 인물의 정서를 시각화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그 구름 위를 걸어가듯 가벼운 발걸.(성기가 자신의 운명을 좇아 길을 떠남을 의미함. '피할 수 없는 역마살의 운명을 삶의 한 방식으로 수용하여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성기에 대한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육자배기 가락**(잡가의 하나. 곡조가 활발하고, 진양조장단이며 남도 지방에서 널리 불림.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함.)이 구성지게 들려온다.

- 김동리 원작, 최금동·김강운 각색, 「역마」

(E): 이펙트(Effect)로 화면은 앞 화면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만 덧붙이는 기법.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4 | 역마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142. 옥화(성기의 어머니)네 집
짐을 지고 일어서며

동운: 그람 아점씨. / 옥화: 예……. 혹시 지나는
길이 있거든 꼭 들리시소예~.

오동운 끄덕인다. / 그때 뛰어 들어오는 성기. / 계
연이는 성기를 보자 갑자기 생기를 띠며 발딱 일어
난다.

계연: 아~, 오빠. / 옥화: 성기야, 계연이가 시방
떠난단다.

성기, 그 자리에서 선 채 표정이 굳어진다.

동운: 아들이 참 잘생겼소. / 성기: …….

옥화: 계연이 아버지시다. 어젯밤에 오셔서 그 길
루 떠나려고 하시는 걸 내가 하루 더 쉬어 가라고 만
류했었다.

㉠ 쇠뿔치로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는 성기.

옥화: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
들을 만났다는구나, 여수에서 큰 공장을 하는 사람
인데,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영감님을 보구서는
굳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권하더라.
그래서 고향 생각도 나구 또 그 사람 도움으로 어떻
게 형편이 될 것같기도 생각되어 여수로 가시는 길
이시다.

그러나 성기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계
연이만 쳐다본다.

계연이도 애걸하듯 호소하듯 붉은 눈으로 성기만
바라다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성기는 앓아누운 채 굶어 죽
을 결심을 한다. 옥화는 그런 성기에게 계연이 자신

의 이복동생이고 계연을 잠시 남겨 둔 채 길을 떠났
던 동운이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계연
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털어놓는다

S#148. 강변

㉡ 얼어붙은 은어잡이 배 위에 수북이 쌓인 흰 눈,
/ 성기가 나와서 물끄러미 얼어붙은 강을 들여다본
다.

거기서 계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나던 일이 회상된
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서서히 풀리면서

계연: (E)*오빠! 요즘은 어찌자고 만날 절에만 노
있는 것이여~.

성기: (E) 어무니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S#149. 강변(회상)

계연: 그렇다구 안 오믄 난 어찌라구. 보고 싶어
뚝 죽겠는디.

성기: 나두 기어이 절에서 배겨 내려구 했지만도
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계연: 저번 날은 지가 잘못했어라우. 공연히 오빠
부아만 돈우어 놓고.

성기: 나 니한테 장가들란다. 기획 봐서 어무니한
테 말할 끼구마. / 계연: 정말?

성기 끌어안으려다가 슬며시 손을 내린다.

계연: ? …… / 성기: 니 말이 맞다. 장가들기 전
엔 손목두 안 만질란다.

미소 짓다가 눈을 감으며 뒷짐을 지고 입술을 내
미는 계연.

지켜보다가 자기도 뒷짐을 지고 입을 맞추는 성
기.

그 그림 위에 펄펄 눈이 내리며

S#150. 강변 (현실)

회상에서 깨어나는 성기.

평평 쏟아지는 눈. / 뽕뽕 얼어붙은 강물
성기, 눈과 함께 흐르는 눈물을 쓱 문지르고 돌아선다.

S#151. 옥화네 집 방안

옥화가 미음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기 앞에 놓는다. 말없이 그릇을 끌어당겨 미음을 먹는 성기—.

옥화: (지켜보다가) 성기야—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 …… (고개를 흔든다.)

옥화: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 …… (역시 고개를 흔든다.)

옥화: 그럼 어쩔 거냐? 너 졸대로 해라. / 성기: 봄이 오면…….

옥화: 봄이 오면? …… / 성기: 나 엇판 하나만 맞춰 주.

옥화: …….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슬픈 눈으로 마주 보다가 다시 미음을 떠먹는 성기.

옥화: (끄덕이고 한숨 섞어) 그래라……. 너 좋을 대루 해야제.

하며 일어난다.

S#152. 강(봄)

㉠햇살을 받고 번득이는 강물. / 떠 있는 은어잡이 배들

물에 씻기는 버들가지. / 산에서 내려오는 빠꾸기 소리.

S#153. 삼거리

성기가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엇목판을 질빵 해서 느직하게 엉덩이쯤에다 걸치고는 걸어온다. 그 뒤에 옥화가 시뻘게진 눈으로 따라 나온다.

성기: (옥화를 돌아보고) 어무니 어서 들어가시오.

옥화: 오냐— 내 걱정 말고 니나 몸 성히 다녀오그라. / 성기: 야—.

이윽고 세 갈래 길 한복판에 올라서는 성기—.

잠시 계연이가 떠나간 구례 길 쪽을 한번 바라보

고는 발길을 돌려 하동 길로 들어선다.

저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옥화의 외로운 모습.

혜초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혜초: (E) 절에 맡긴다고 역마살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가슴에 남달리 꿈이 많아서 그런 거니 지가 열심히 수도해서 그 꿈을 죽일 수밖에…….

소향: (E) 사내들 마음은 밖으로만 떠돌기 마련이구, 기집들은 그걸 붙들어 놓지 못해 안달이구……. 그러다 놓치면 눈물로 늙어 가구……. 사람이란 천생 그렇게 살기 마련인 갑다.

옥화: (E) 원래 여자들보다 사내들이 더 꿈이 많은가 봐요.

옥화, 주르륵 눈물을 짓는다.

저만치 성큼성큼 걸어가는 성기, 눈물에 흐려진다.

S#154. 길

강물에 비치는 성기의 그림자.

앞은 흰히 트인 하늘.

그리고 구름.

㉠그 구름 위를 걸어가듯 가벼운 발길.

어디선가 육자배기 가락이 구성지게 들려온다.

— 김동리 원작, 최금동·김강운 각색, 「역마」

(E): 이펙트(Effect)로 화면은 앞 화면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만 덧붙이는 기법.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나 상황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운명적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⑤ 동일한 공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연이 떠난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된 성기의 충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성기가 처한 이별의 상황과 그로 인한 내면의 고독감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아들이 정착이 아닌 떠돌이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옥화가 느낀 당혹스러움을 보여 준다.
- ④ ㉣: 성기가 자신의 역마살을 극복하고 화개 장터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배경이다.
- ⑤ ㉣: 운명에 순응하기로 결심한 성기의 내면이 한결 홀가분해졌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운은 여수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의 권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 ② 옥화는 성기에게 강원도로 갈 의사를 물었으나 성기는 거절한다.
- ③ 성기는 과거에 계연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 ④ 계연과 성기가 헤어지는 순간에 계연의 슬픔이 인물의 표정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 ⑤ 성기는 옛판을 메고 길을 나설 때 계연이 떠나간 구레 길을 선택하여 뒤를 쫓는다.

고난도 4. S#148 ~ S#150에서 사용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E)는 화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물의 내면 심리나 회상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대비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보여준다.
- ③ 강물의 변화는 인물의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 ④ 회상 장면을 통해 성기와 계연이 서로 깊이 사랑하던 사이였음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 ⑤ 눈이 내리는 장면을 현실과 회상의 연결 고리로 사용하여 분위기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5. 윗글 S#153의 공간적 배경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화합의 장소이다.
- ② 고향을 떠난 이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희망의 공간이다.
- ③ 여러 방향의 길로 나뉘는 곳으로, 운명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④ 신분 차이로 인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연인들이 재회하는 공간이다.
- 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세우는 성찰의 공간이다.

6. <보기>는 작가의 의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는 인간의 힘으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힘과 그것에 순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과 조화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특히 ‘길’은 떠돌이 운명을 상징하며, 인물이 길을 선택하는 행위는 자신의 본질적 삶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 ① 성기가 옛판을 메고 길을 나서는 것은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수용하는 행위이다.
- ② 성기가 하동 길을 선택한 것은 세속적 인연을 떨치고 운명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이다.
- ③ 옥화가 성기에게 “니 좋을 대루 해야제.”라고 말한 것은 아들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④ 성기의 발길이 구름 위를 걸어가듯 가벼워진 것은 운명에 대한 저항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 ⑤ 세 갈래 길은 인물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운명적 기로를 상징한다.

고난도 7. <보기>는 윗글의 ‘삼거리’에 있는 안 내문이다. 윗글에 따를 때,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김동리 문학의 발원지(發源地) ‘화개 장터’: 이곳은 김동리의 단편 소설 ‘역마(驛馬)’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전라도, 경상도의 접경지대인 이곳은 오래전부터 5일장이 열렸던 곳으로……. 작품의 등장인물인 성기는 어머니의 주막이 있는 화개 장터를 등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을(를) 형상화하려 한 작가의 의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 대 자연의 갈등과 극복의 의지
- ② 환희와 비애가 되풀이되는 삶의 여정
- ③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그에 대한 순응
- ④ 인간적 본성으로서의 고독의 적극적 수용
- ⑤ 고통스러운 현실의 극복과 새로운 이상의 추구

8. 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영: 성기가 미음을 먹기 시작한 건, 죽으려던 결심을 꺾고 삶의 의지를 다시 찾았다는 뜻 같아.
- ② 윤서: 맞아. 하지만 그 삶은 옥화가 원했던 정착하는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이었지.
- ③ 주연: 옥화가 성기에게 엽판을 맞춰 주며 한숨을 쉰 건 아들의 선택이 못마땅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는 증거야.
- ④ 지수: 혜초와 소향의 대사를 들어보면, 떠돌이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 ⑤ 동준: 마지막 장면에서 육자배기 가락이 들려오는 건 작품의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

9. <보기>는 윗글의 바탕이 된 소설의 일부이다. 윗글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쪽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엽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 ① 윗글에서는 성기가 미음을 먹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기>에서는 막걸리와 산나물을 먹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성기의 요청이 옥화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윗글은 S#148부터 시간적 배경이 겨울과 봄으로 제시되지만, <보기>는 이른 여름의 장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한다.
- ④ <보기>는 성기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윗글에서는 성기의 행동만으로 그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⑤ <보기>와 윗글 모두 옥화의 침묵을 통해 그녀의 당혹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0.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기와 계연의 이별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연이 다른 남성과 혼인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 ②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한곳에 머물러 살 수 없었기 때문에
- ③ 두 사람이 혈연관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 ④ 옥화가 계연의 아버지가 과거의 원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 ⑤ 계연의 아버지가 성기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시나리오의 지시문과 대사, 장면 번호 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며, 소설과 같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나 선택을 평가하는 서술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옥화의 대사를 통해 계연이 떠나는 이유와 동운의 정체 등이 전달된다.
- ② ‘얼어붙은 강물’ 등을 통해 성기의 쓸쓸한 심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S#149에서 성기와 계연의 모습을 과거 회상 장면으로 보여 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제시한다.
- ⑤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강변의 묘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며 성기의 상황이 변화함을 암시하고 있다.

2. [정답] ④

‘햇살을 받고 번득이는 강물’은 성기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는 시점의 배경이므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성기는 계연이 여수로 떠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성기의 충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적절하다.
- ② 겨울 강변의 차가운 이미지는 계연이와 함께 했던 상황과 대비되어 성기가 처한 이별의 상황과 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옥화는 성기가 엇판을 맞춰달라고 하자 아들이 떠돌이 삶을 선택했음을 직감하고 충격을 받는다.
- ⑤ 세 갈래 길에서 운명을 순응하는 길을 선택한 성기의 발걸음은 운명과의 갈등을 해소한 성기의 심적 가벼움을 보여 준다.

3. [정답] ⑤

성기는 잠시 계연이 떠나간 구레 길 쪽을 바라보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 하동 길로 들어선다.

- ① ‘여수에서 큰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영감님을 보구서는 굳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권하더라.’에서 알 수 있

다.

- ② S#151에서 옥화는 성기에게 강원도로 가고 싶은지 묻고 성기는 고개를 흔든다.
- ③ S#149의 회상 장면에서 성기가 계연에게 장가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장면이 나온다.
- ④ S#142에서 계연이 붉은 눈으로 애걸하듯 호소하듯 성기를 바라본다고 묘사되어 있다.

4. [정답] ③

강물이 얼어붙은 것은 현재 성기의 얼어붙은 마음이나 상황을, 강물이 풀리는 것은 따뜻했던 과거 회상 속의 분위기나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일 뿐, 인물 사이의 거리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① (E)는 화면은 앞 화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만 덧붙이는 기법이며 S#148에서 성기와 계연의 대화가 회상과 함께 들려움을 알 수 있다.
- ② 현재 성기가 혼자 있는 쓸쓸한 강변과 과거의 계연과 함께 다정한 추억이 있던 강변이 교차하며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회상 속 대사 “나 너한테 장가들란다.”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S#149 끝과 S#150 시작에서 모두 눈이 내리는 묘사가 나타나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5. [정답] ③

삼거리는 구레 길과 하동 길 등으로 나뉘지는 길로 성기가 구레 길 쪽을 한번 바라보고 하동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아 삶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장소이다.

- 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화합하는 장소가 아닌 운명을 수용한 인물의 선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② 고향을 떠난 이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④ 성기는 계연이 간 구레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동 길로 들어선다. 또한 성기와 계연은 신분 차이로 인해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다.
- 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6. [정답] ④

성기의 발길이 가벼워진 것은 운명에 저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운명에 순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① 엽판은 떠돌이 삶을 의미하는 도구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성기의 선택을 상징한다.
- ② 하동 길은 계연과의 인연이 있는 구레 길과 대비되는 곳으로, 운명적 방랑의 길을 의미한다.
- ③ 옥화는 아들의 운명을 바꾸려 노력했으나 결국 운명의 힘을 인정하고 떠나는 성기를 배웅한다.
- ⑤ 세 갈래 길은 인연과 혈연적 정착, 운명의 수용을 나타낸다. 이는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운명적 기로라고 볼 수 있다.

7. [정답] ③

성기와 계연은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결국 가슴 아프게 헤어지고 만다. 그리고 성기는 어머니로부터 계연이 자신의 이모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성기는 자신의 역마살에 따라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되므로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그에 대한 순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성기라는 개인과 역마살이라는 운명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으로 개인과 자연의 갈등과 그에 따른 극복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매력적인 오답]** 계연과의 사랑으로 인한 환희와 이별로 인한 비애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서가 되풀이되는 삶의 여정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 ④ 계연과의 이별을 통해 홀로 슬퍼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만, 인간적 본성으로서의 고독을 수용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이별의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성기의 모습과 운명을 수용한 성기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운명의 수용이지 새로운 이상의 추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8. [정답] ③

옥화의 한숨은 아들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체념과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선택을 반대하며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다. 옥화는 결국 "넌 좋을 대루 해야제."라며 성기의 선택을 수용한다.

- ① 성기는 계연과의 이별 후 앓아누웠으나 미음을 먹으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다.
- ② 성기는 옥화가 제안한 '여기서 장가들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정착하는 삶을 거절하고 떠돌이의 삶

을 선택한다.

- ④ 혜초와 소향의 대사에서 '절에 맡긴다고 역마살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천생 그렇게 살기 마련인 갑다.'를 통해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막기 어렵다는 운명론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옥자배기는 민족적 정서를 담은 가락으로 작품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9. [정답] ④

윗글에서도 성기는 "나 엽판 하나만 맞춰 주."라고 대사를 직접 말한다. 따라서 대사 없이 행동으로만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의 '미음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서'에서, <보기>의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옥화가 뒤통수나 머리를 얻어맞은 듯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옥화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묘사한다.
- ③ **[매력적인 오답]** 윗글은 '평평 쏟아지는 눈', '강(봄)' 등을 사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겨울과 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기>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으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 모두 옥화가 말하는 부분에 '.....'를 사용하여 그녀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 준다.

10. [정답] ③

중략 부분 줄거리의 '옥화는 그런 성기에게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고'에서 알 수 있듯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며 동운이 자신의 친부임을 성기에게 밝히고 있다. 즉, 성기와 계연의 이별한 원인은 혼인할 수 없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이다.

- ① 계연이 다른 남성과 혼인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② 역마살은 성기의 운명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별의 직접적 계기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옥화는 동운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깨달은 것이 지원수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 ⑤ 성기와 계연의 신분 차이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계연의 아버지인 동운이 성기를 반대하는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다.